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41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5.09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비전 2030 함께 열어가는 새여정

비전수립 Workshop (09.27)

지난 토요일(9/27) 오랜만에 외부행사의 느낌을 가지고 편한 복장으로 모였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세미나실에서 “비전 2030, 함께 열어가는 새 여정”이라는 주제로 비전수립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전 직원이 함께 병원의 내일을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전에는 조별 인사와 조이름 짓기를 통해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병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비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해나행 미션 100인 100색’ 해설과 비전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도 이어져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비전수립 방법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조별 토론을 통해 우리 병원의 2030 비전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조별로 도출된 아이디어 중 일부는 전 직원 투표에 부칠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부문별 토론과 비전선언문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3~4개의 비전 후보는 추가적인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다시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운대나눔광행복병원 ‘비전 2030’이 결정됩니다.

추후에 카카오워크를 통해 공지될 비전 투표에도 한 번 더 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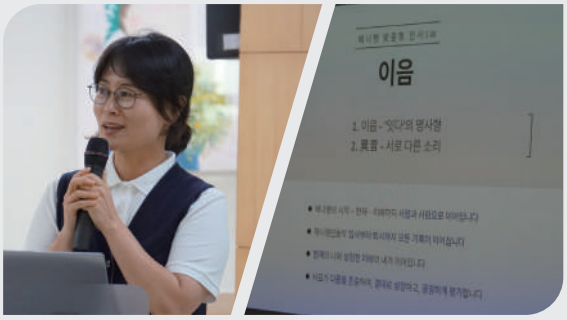


“법인 전환과 새로운 도약”

2025년 하반기 전사미팅 (09.02)







9월 2일, 해나행 전 직원이 모여 2025년 하반기 전사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은 해나행이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비전과 성장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순서에서 백선미 병원장님께서 법인 전환이 단순한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직원·환자·지역사회를 중심에 둔 미션을 실천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구조 속에서 지역사회와 성과를 나누고, 자생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어서 조직문화성장실 박선미 실장님이 새로운 비전 수립과 인사평가 제도 개편을 소개했습니다. 해나행은 ‘비전 2025’를 마무리하고 ‘비전 2030’을 준비 중이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설문과 논의를 거쳐 올해 송년회에서 새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사평가 제도는 단순한 보상 수단을 넘어 직원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도구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HR팀 박인영 팀장님은 맞춤형 인사 소프트웨어 ‘이음’을 소개했습니다. 직원의 성장 기록과 평가를 통합 관리하며, 향후 급여·연말정산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사미팅은 법인 전환의 의미와 새로운 도약의 방향을 확인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나행은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미션을 지켜가며, 직원·환자·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2026년, 해나행의 더 큰 변화를 함께 기대합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회복기 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2025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09.10)

9월 10일(수),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2025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회는 “회복기 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김완호 원장님을 비롯하여 간호팀 이연향·정경란 파트장님, 재활치료1팀 신지영 파트장님, 사회사업팀 김지헌 팀장님, 재활코치팀 성민규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새벽 5시 첫 기차를 타고 출발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학회에 함께하였습니다.

대회의실에서는 사회사업팀 김지헌 팀장님께서 “One-stop 통합플랫폼 기반 연구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으며, 컨벤션홀에서는 재활코치팀 성민규 팀장님께서 “전환홈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 사례”를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1년간 저희 병원과 함께하셨던 국내 뇌신경재활 분야의 선구자이신 김연희 원장님과도 반가운 재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저희 병원 두 팀장님의 발표가 가장 인상 깊었다는 평가가 이어져, 김완호 원장님께서도 큰 자부심을 느끼셨다는 훈훈한 뒷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긴 하루의 여정을 마친 일행은 늦은 밤에야 부산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5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
성민규 팀장 취업 특강 (09.02)



9월 2일(화)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5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는 장애인 구직자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와 다양한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총 54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이 진행되었으며, 진로설계관·직업체험관·취업특강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약 2,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병원 재활코치팀 성민규 팀장은 '회복의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의 가치와 성장 방향을 소개하며 단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과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활코치라는 직업의 개념과 해외 사례, 역할과 역량을 설명하며 환자 곁에서 동행자로서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재활코치 직무와 병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장애 학생과 구직자들이 도전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운 자리였으며, 재활코치라는 직업 또한 그 여정 속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소망정원에서 피어난 따뜻한 약속

2025 환자안전 & 감염관리 주간행사 (09.17)

9월 17일 '환자안전의 날'을 맞아 9층 소망정원에서 환자안전 & 감염관리 주간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원과 참여자(환자)가 함께 안전의 가치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UV 체험으로 손 씻기 사각지대를 확인하며 기본의 중요성을 새겼고, PPE 착·탈의 체험에서는 웃음 속에 책임감을 되돌아봤습니다. 퀴즈와 낱말 맞추기에서는 자연스러운 교류와 학습이 이어졌고, 작은 선물은 "즐겁게 배우는 자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후에는 참여자(환자)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호흡기 예절, '위험한 상황 찾기', '안전한 투약 ZONE'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배우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장소를 옮겼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고, 마지막에 전달된 선물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9명의 해나행 AI 내부코치를 소개합니다!”

AI 역량강화 및 내부코치 양성교육 수료식 (09.25)

▷참 석 자: 백선미 병원장님, 강사 김대용 파트장님
▶수 료 자: 안전보건팀 - 박희진
감염관리팀 - 이무경
재활1팀 - 김동호
재활2팀 - 김종태
언어인재재활센터 - 강명승
브랜딩실 - 권용협, 박주영, 서수원
HR팀 - 박수진



우리들 바로 곁에 무려 마이크로소프트의 Secure AI-Driven Productivity Bootcamp의 교육파트너가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원무팀의 김대용파트장님입니다^^ 멀리서 강사를 모실수도 있지만, 해나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해나행에 꼭 필요한 AI가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분이 교육을 진행해주시니 더욱 내실있는 교육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업무에 AI를 조금씩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없을지 고민하셨던 분들과 AI의 진입장벽을 넘어 한번은 배워보고 싶었던 분들 모두 8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AI를 보다 적극 활용해볼 수 있는 자신감이 한층 채워졌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 25일(목)에는 수료식을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께는 [해나행 AI 내부코치 자격증]도 수여되었습니다. 지난 8주간 배운 부분들 각 팀에서 주변분들과 잘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

AI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김대용파트장님과, 내부코치님들께 적극 배우시길 권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교육으로 만나요~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신입직원 교육이 있던 어느날, 9층 소망정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25년 신입직원 3개월 프로그램 실시

신입직원교육은 신입직원이 해나행의 조직문화와 비전을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갖추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입니다.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총 세 번의 만남으로 진행됩니다.

- 신입직원온보딩 1차(1개월차) - 신입직원교육
- 신입직원온보딩 2차(2개월차) - 입사동기 공감만남
- 신입직원온보딩 3차(3개월차) - 수습수료식



입사동기 공감만남 “서로를 응원합니다”

6기 신입직원 온보딩 2차 (09.15)

▷참 석 자: 간호팀 - 이채원
재활치료2팀 - 박연주
브랜딩실 - 박주영
재무팀 - 이현승, 박아람

2025년 6기 신입직원들의 두 번째 만남은 따뜻한 티타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 멈춰 동료와 웃음을 나누고, 백선미 병원장님과 함께해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봅니다”라는 우리의 미션과 핵심가치 중 ‘즐거움’과 ‘공정함’에 대해, 신입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병원장님께서 따뜻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소속감을 확인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따뜻한 동행을 시작한 6기 신입직원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수습수료식 “함께 뿌리내림”

5기 신입직원 온보딩 3차 (09.26)

▷수 료 자: 간호팀 - 이태영, 박지연, 배진경, 이희주
갑상선유방팀 - 김시향, 마정연

2025년 5기 신입직원들의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습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서로의 노력과 성장을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 해나행에서 함께 뿌리내리는 시간의 출발점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신입직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배움과 도전을 통해 성장하였고, 동료와 함께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건강한 한 축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그 과정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29, 30, 31, 32대 꿀꺽왕 시상식 (09.03 / 09.19 / 09.26)

한 명도 배출되기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꿀꺽왕이 9/3일 하루에만 두 분, 그리고 9월에는 네 분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815호 김○아님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와중에도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며, “몸이 좋지 않은데도 찾아와 주셔서 죄송하고, 그동안 치료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라며 따뜻한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꿀꺽왕은 503호 김○수님입니다.

마침 보호자분도 면회 중이셔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대학 입학 후 중도에 그만두면서 학사모를 써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학사모를 쓰고 시상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배현경 선생님

무엇보다 두 분의 꿀꺽왕 탄생 뒤에는 참여자분들을 위해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주신 연하전문 작업치료사 배현경 선생님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7일, 세 번째 꿀꺽왕에는 오○순님께서 영광의 상을 받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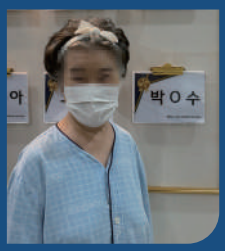



이번 시상식은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순님께서는 “까만 유니폼의 선생님들이 우르르 몰려와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렇게 직접와서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치료 여정을 함께한 노력과 진심이 느껴져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여정 뒤에는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박소민 선생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과 사랑이 오늘의 특별한 순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박소민 선생님

9/15일, 네 번째 꿀꺽왕에는 박○수님께서 영광의 상을 받으셨습니다.

박○수님께서는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잘해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는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최지용 선생님

이번 회복 여정에는 묵묵히 동행하며 정성을 다해주신 최지용 선생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오늘의 특별한 순간이 가능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9.05)

6층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여,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멋진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8월의 출석왕에는 박○수, 김○미 님이, 자립왕에는 배○철 님이 수상하셨고 시상식은 환호와 웃음 속에서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상식은 김완호 원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셔서 참여자분들의 수상을 함께 축하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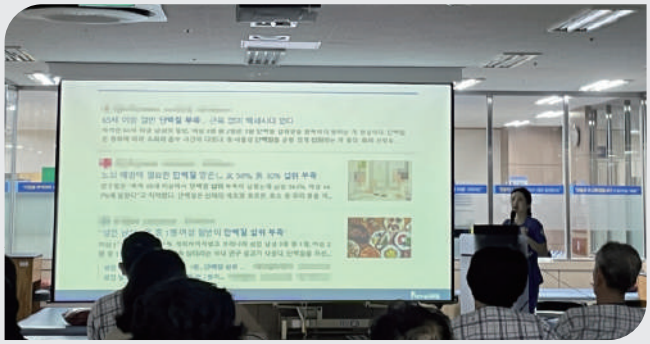
또 이번 출석왕에 선정되신 김○미님께서는 "영양팀"의 따뜻하고 맛있는 밥 덕분에 병원오는 것이 즐겁다며 영양팀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은 성취를 함께 축하하며 환자분들이 재활에 더욱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동행 속에서, 회복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재활생활 (09.10)



슬기로운재활생활 다섯 번째 시간은 '재활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양관리, 단백질 섭취'를 주제로 영양팀 김정희 팀장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근육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꼭 필요한 단백질의 역할, 체중당 권장 섭취량, 단백질 식품군별 특징과 균형 잡힌 섭취 방법 등 재활기간에 꼭 알아야 할 실질적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들은 강의자료 속 식단 예시를 함께 살펴보며 본인의 하루 섭취량을 점검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는 식습관 실천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원 생활 중에도 스스로 식단을 관리하고 재활과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를 균형있게 보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달에는 재활간호의 증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룹치료 ‘네잎클로버 키링 만들기’ (09.13)

사회사업팀이 진행하는 다섯 번째 시간에는 참여자와 보호자가 함께 네잎클로버 키링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유래와 ‘어떤 행운을 기다리고 있나요?’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전에 많이 하던 바느질과 같다며 구슬을 하나씩 실에 꿰어 넣으며 총 3개의 네잎클로버 키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두꺼운 실과 구슬의 작은 구멍 때문에 꿰는 작업이 쉽지 않을 거라 걱정했지만 끝까지 스스로 완성해내고자 하셨습니다.

어디에 달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치료사 선생님께 행운을 선물 하겠다’ ‘자녀에게 전해주겠다’ ‘행운을 기원하며 휠체어 가방에 달겠다’ 등 마음을 담아 선물하고 싶은 소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키링으로 서로에게 행운을 전하며 따뜻함을 가득 채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 2팀과 사회사업팀의 그룹치료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09.20)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10월1일(수) 오후6시30분 4층 재활치료실에서 달빛아래 추석음악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척수이야기 (09.01)

이번 척수이야기에서는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여성 활동가분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고받으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만큼 열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는 함께하신 보호자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퇴원한 참여자분들이 직접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입원해 계신 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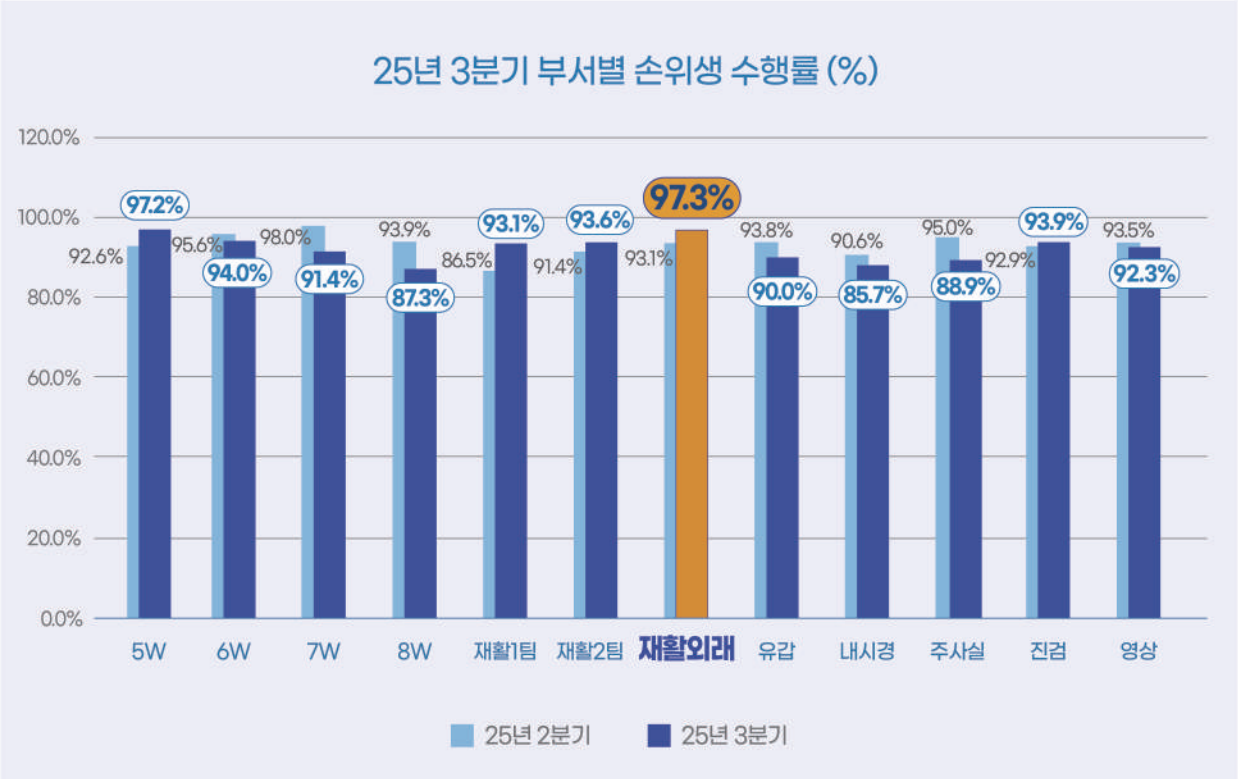
휠체어스쿨 (09.08)

이번 휠체어스쿨에 외부에서 오신 신규 참여자분을 모셨습니다.

참여자분 모시고 탁구체험하러 갔을 때 인연이 되어 이야기 나누는 중에 병원에 휠체어스쿨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휠체어 타기에 어려움을 겪던 중 배우고 싶다는 열정으로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많은 연습을 하셨던 만큼 기본적인 부분은 능숙하게 해내셨지만, 외부 활동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기술을 익혔습니다. 참여자분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꼭 배워야 한다"며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밖에서도 자신감 있게 휠체어를 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저희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로 배우고 응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활외래' 3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09.22)

우리 병원은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분기별 손위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7월~9월) 손위생 수행률은 관찰건수 총 621건 중 570건이 수행되어 9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목표치인 90%를 달성했으나, 지난 분기보다 0.8% 낮은 수치입니다.

부서별로는 재활외래가 97.3%로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이며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5W·6W·재활1팀, 재활2팀, 진단검사의학팀 등 다수의 부서도 93%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손위생은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모든 부서가 높은 수행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5년 9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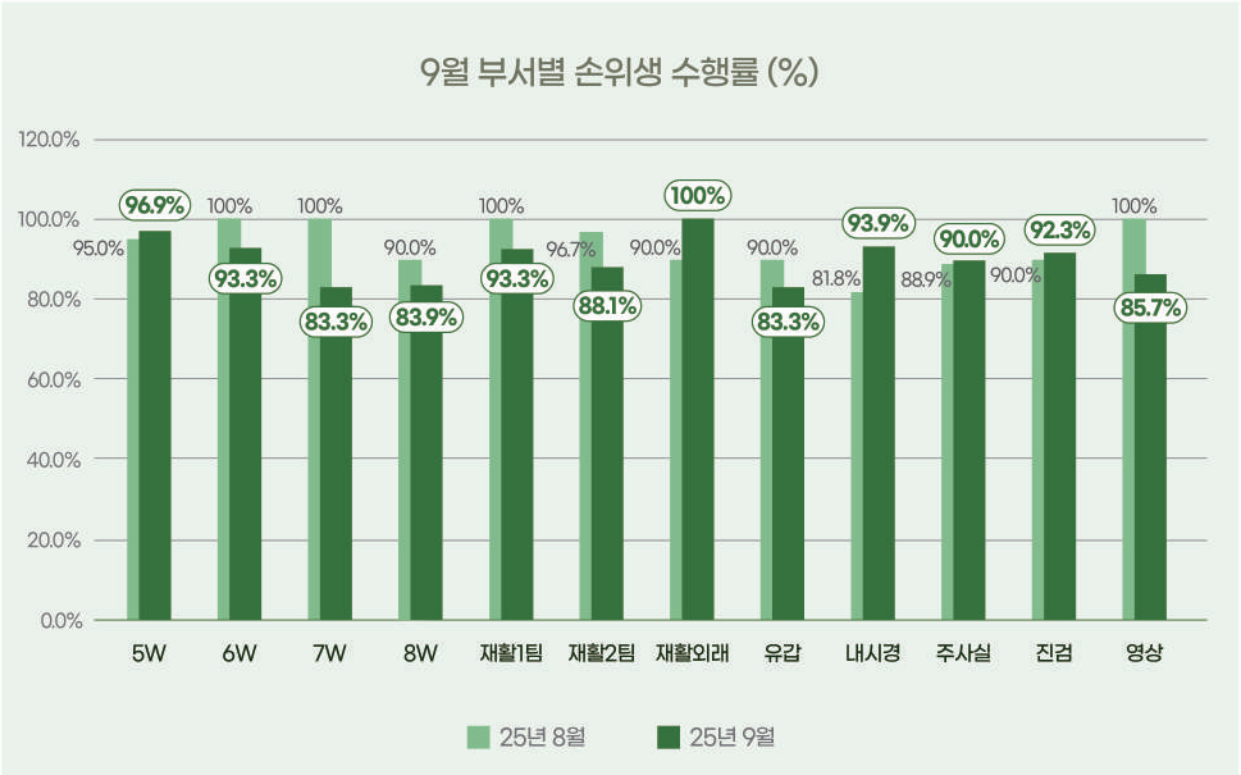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5년 09월 01일 ~ 2025년 09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5년 8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250	225	90.0%	- 4.5%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2025년 3분기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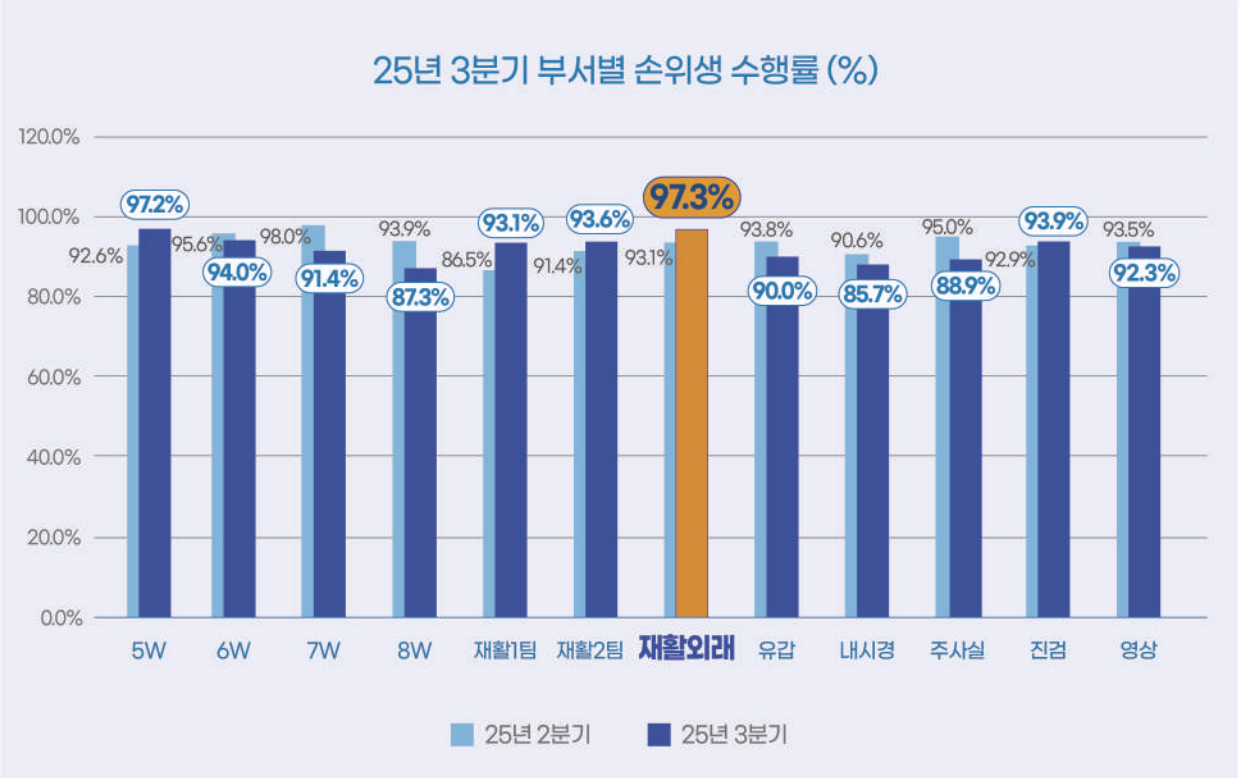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5년 07월 01일 ~ 2025년 09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621	570	91.8%	**- 0.8%**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다시 핸들을 잡다 '일상으로, 직장으로'

30대 남성 이OO님은 뇌출혈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본원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초기 사회사업상담 시 참여자는 냉방 설비 시공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일상이 중단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원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참여자 및 부친과 수시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도우며 직장 복귀를 위한 사회복귀 계획을 함께 수립해 나갔습니다.

이OO님은 복직을 위해 조기 퇴원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아직 재활치료가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퇴원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슬기로운재활생활 교육 참여를 통해 질환의 특성 및 회복기 재활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고, 평소 음악에 취미가 있어 하모니카 프로그램 행복하모니를 통해 취미활동을 이어나가며 마음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업무 복직 시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달라진 신체 상태로 인해 안전한 운행을 위한 준비와 차량 개조가 필요하여 국립재활원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을 안내드렸습니다. 먼저 퇴원 전 적절한 시기에 본원에서 운전인지능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재활코치팀의 밖으로 한걸음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운전면허를 갱신하였습니다. 신체 기능에 맞는 면허조건을 부여받은 후 국립재활원에 연계하여 향후 차량개조 안내 및 운전연수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OO님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본원 낮병동 치료와 직장 업무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퇴원 후 국립재활원 운전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 연수 후에는 직장 출퇴근 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다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사업팀은 이OO님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의 걸음마다 건강과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 colspan="6"><table><tr><th>성별</th><th>나이</th><th>보호유형</th><th>대상질환</th><th>발병일</th><th>입원기간</th></tr><tr><td>남</td><td>30</td><td>일반</td><td>뇌출혈</td><td>2024.09.</td><td>2024.11. ~ 2025.08.</td></tr></table></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3인 가구(부모, 참여자)
■ 주보호자 : 부친
■ 가족 지지체계 좋음</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직업 및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음</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냉방 설비 시공 사업 운영
■ 개인보험 : 없음</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아파트
■ 주거환경 : E/V 있음, 안전바 미설치, 현관단차 있음</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직장복귀 예정, 조기퇴원 희망
■ 직장복귀 시 운전 필수</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자택으로 퇴원
■ 치료계획 : 낮병동
■ 8월 원 직장 복귀 계획</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수시 상담
■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 PG
■ 밖으로 한걸음 PG :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
■ 심리정서지원 : 행복하모니 PG</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한국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 갱신
■ 국립재활원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안내 및 연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td></tr>
</tabl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09.26)



내과내시경팀
최혜지 팀원

詩. 선물 받은 날

- 유안진 -

춘삼월 초아흐레
볕 밝은 대낮에
홀연히 내게
한 천사를 보내셨다

청 드린 적 없음에도
하늘은
곱고 앙징스런
아기천사 하나를

탐낸 적 없음에도
그저 선물로 주시며
이제
너는 어머니라

세상에서 제일로
복된 이름도
함께 얹어주셨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09월의 신규입사자



진료부 이해주 과장



재활간호팀(8W) 김명진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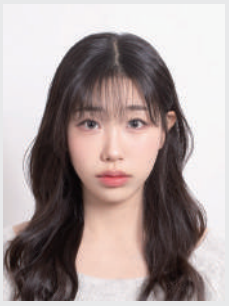
내과내시경팀 홍혜원 간호사



갑상선유방팀 박은정 간호조무사



진료부 곽준섭 과장



재활간호팀(8W) 서수빈 간호사



건강증진팀 고미혜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8W) 이상경 간호사



재활간호팀(7W) 신혜정 간호사

9월의 기도

- 이해인 -

저 찬란한 태양
마음의 문을 열어
온 몸으로 빛을 느끼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꽃 길을 거닐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다 보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이 있게 하소서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람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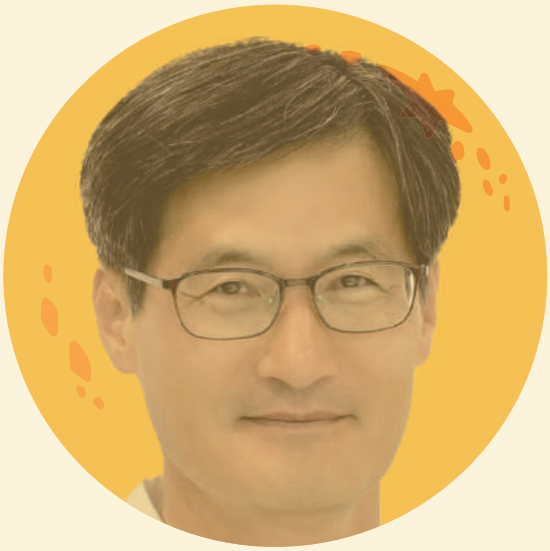
이미용 서비스 (09.16 / 09.26)

매월 이미용 자원봉사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와 참여자분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병실 안의 생활은 때때로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지만, 정성껏 머리를 다듬고 나면 환한 미소와 함께 마음까지 환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번 달에도 4명의 자원봉사자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82명의 참여자분들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나눔을 넘어,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능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자 따뜻한 연대의 표현입니다. 매달 잊지 않고 병원을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자원봉사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석 선물
고민되시죠.
공진단 경옥고
어떠셔요.



추석 이벤트



추석 맞이 공진단·경옥고 특별 할인 이벤트

이벤트 기간 09.01 ~ 10.18 까지

공진단 1box(10환)	경옥고 1box(30포)
정상가	정상가
150,000원	70,000원
할인가	할인가
105,000원	**49,000원**

해당 할인율은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구입 및 자세한 문의는 오후시간에 한방과 외래 051.726.05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스물두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22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고갈비구이 정식







“이제 슬슬 고등어가 살이 통통하게 올라올 시기인데,
고등어를 겉바속촉으로 맛나게 구워 주세요.”라는 요청에
따라 기가 막히게 맛깔나게 구운 고등어로
고갈비구이 정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윤기가 좔좔 흐르는 밥 위에
최상의 기술로 구워진 고등어를 한 점 올리고,
매콤하면서 감칠맛으로 중무장한 양념장을 더 해 주면
이 한 숟갈로 맛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또한 고등어에는
오메가-3지방산, Vit D, Vit B12 등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 뇌 기능 향상, 항염증,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도 안 준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을에 맛의 정점을 이룬다는 고등어로,
맛과 영양을 모두 흡수하는 한 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에
마음 또한 풍요로워 지길
영양팀은 정성을 담은 음식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9.09)

배움을 지속하는 해나행 가족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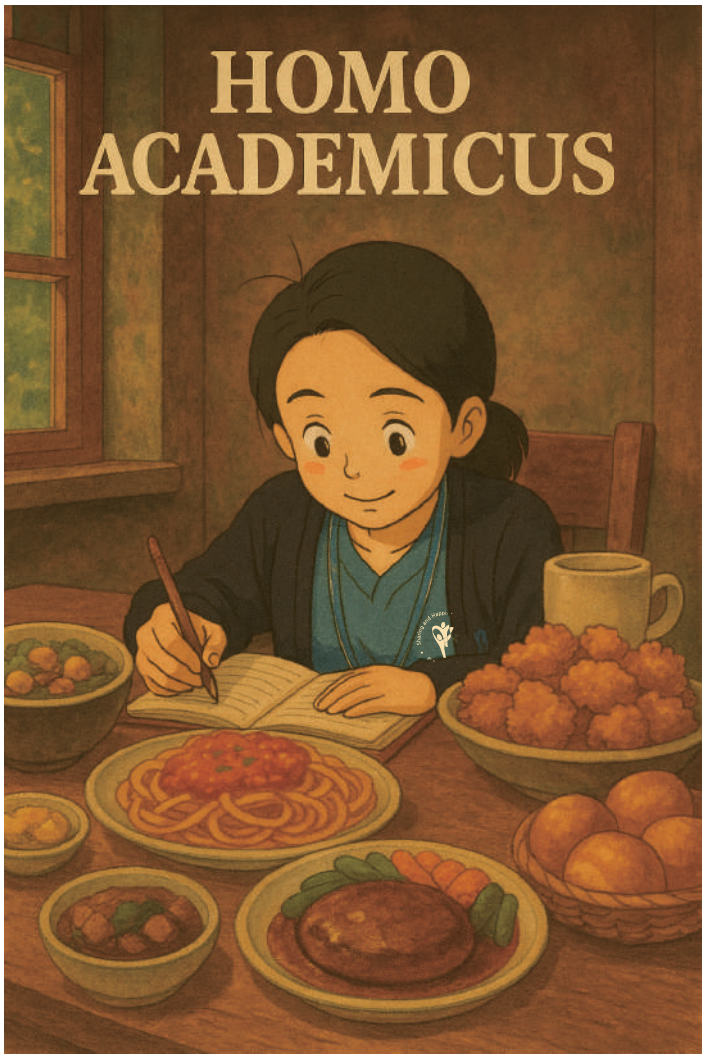
공부하는 인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을 '호모 아카데미쿠스'라 명명한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며,
우리 해나행과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해나행 가족들의 모습에 자극받으며,
오늘도 입에 착~감기는 조리법에 대해 연구 중인 영양팀이,
해나행 가족의 배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움에는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칠맛이 과하게 넘쳐
과식을 부르는ㅎㅎ 음식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식을 통해ㅎㅎ
최대치로 끌어올린 에너지로
오늘도 호모 아카데미쿠스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하루가 되길 응원 하겠습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마흔한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41

삼인성호(三人成虎)와 옳은 소수

다수의 목소리와 소수의 고집 사이에서

>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툴 때, 대개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입장이 옳다고 믿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과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이 소수인 경우에도, 누구나 자기가 그 '옳은 소수', '특별한 도덕적 판단력을 가진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_도스토옙스키《죄와벌》(삼성출판사)

평일 저녁, 동래역 4번 출구에서 대학 동기들을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계모임이다. 남자들만 8명이지만 1차는 50분이면 끝난다. 술 좋아하는 나도 이 모임에서는 술 안 먹는다. 2차 커피숍에서 1시간을 넘긴다. 잠시 직장 얘기를 나누다가 금세 정치와 사회 이야기로 옮겨갔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잖아."
"아니야, 그래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 우리가 더 참여해야지."
"글쎄, 나는 그런 거 다 부질없다고 봐.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말이 오갈수록 친구들의 표정은 점점 단단해지고, 목소리는 커졌다. 나는 조용히 라떼를 홀짝이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흥미로운 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확신에 차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치 각자가 '옳은 소수'에 속해 있다는 듯, 자신이야말로 다수의 착각을 넘어선 특별한 시각을 지녔다고 믿는 눈빛이었다.

>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내가 허용한 제한적인 경험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_이랑주《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샘터)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란, 어쩌면 그들이 허용한 제한적인 경험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 나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각자 자신이 본 세상과 들은 이야기, 마음속에 쌓아둔 경험의 틀 안에서만 옳고 그름을 가르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면 세상은 아이러니하다.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반복하면, 어느 순간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를 두고 옛사람들은 "삼인성호(三人成虎)"라 했다. 세 사람이 입을 모으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이다. 다수가 힘을 합치면 진실 아닌 것도 진실이 되고, 소수는 설 자리를 잃는다. 하지만 정작 그 다수 속에서도,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이 '옳은 소수'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또 자기 확신에 머무른다.

방총(龐蔥)과 태자가 한단(邯鄲)에 인질로 잡혀 가며 위나라 왕에게 말했다.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라고 말하면, 왕께선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아니네."라고 대답했다. (방총이 말했다.) "두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라고 말하면, 왕께선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과인은 의심할 걸세."라고 대답했다. (방총이 말했다.)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라고 말하면, 왕께선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과인은 믿을 것이네."라고 대답했다. 방총이 말했다. "대저 시장엔 호랑이가 없는 게 분명할 것이나, 그러한데도 세 사람의 말이 호랑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한단과 대량의 거리는 시장보다 멀고, 신(臣)을 비방하는 자는 세 사람을 넘을 것입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이를 살펴주십시오." 왕은 말했다. "과인은 진정 안다고 생각한다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으나, 참언(讒言)이 먼저 영향을 미쳤다. 훗날 태자는 인질에서 풀려났지만, (방총은) 끝내 (왕을) 뵐 수 없었다.
_출처《나무위키》

이런 풍경은 직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회의 자리에서 프로젝트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릴 때, 모두 자기 입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누군가의 말은 반복되며 힘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홀로 고집스러운 소수로 남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정답은 늘 한쪽에만 있지 않았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섞이고 다듬어지면서, 혼자였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길이 열리곤 했다.

아마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게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잠시 품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가 아는 세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겸손함, 그 작은 여유가 진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닐까.

곗날을 마치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가는 길, 나는 다시금 생각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내가 옳은 소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어야겠다고.

어쩌면 그 작은 인정에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가 조금 더 따뜻하게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야말로
우리가 끝내 찾아야 할 진짜 '옳음'일지도.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41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5년 09월 30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